보성 스님은

율원 발전 남다른 관심



몇 해전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보성스님을 뵈었다. 스님은 당시 송광사 제5대 방장으로 추대되기 전이었다.

구족계 수계산림에 증사로 오신 스님은 교육내용을 꼼꼼히 챙기며, 습의사로 참여한 율사스님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강조했다.

며칠 후 잠깐의 휴식시간에 송광사 사미들을 모아놓고 웃으시며 격려를 해주셨다. "만약 성적이 다른 사찰에 떨어지면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유머까지 곁들이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는 시험을 앞두고 먼 곳에 온 행자들을 친히 불러서 격려해주는 천진함을 지닌 참 따뜻한 노스님이라는 생각을 했다.

97년 11월 송광사 5대 방장으로 추대되신 보성스님은 송광사는 물론 파계사 해인사 등의 율사스님들을 대만 율원에 보내고 외국서적을 구입해 율원과 율사들에게 보내주는 등 계율의 중요성과 확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

또 수계산림에 '삼보일배' 교육을 도입하는 등 승려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보성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1991년 대만 불광산 계단교육 참학(존증사), 호계원 재심위원을 거쳐 현재 단일계단 수계산림 증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송광사 목우가풍 행자시절부터 엄격하게 습득

에는 송광사 행자들이 모두 모였다. 행자들은 스님에게 정중히 삼배의 예를 갖추고, 가지런히 앉았다.

보성스님은 행자들에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상하게 물어보신다. 이어 행자들에게 초발심이 중요하다며 송광사가 조계산문을 연 뜻을 잘 새겨서 계율을 잘 지키며 생활하라고 강조하셨다.

승가상 정립은 행자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행자때 부터 사미 사미니 까지는 정말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스님의 위의와 일상의례를 배워놔야만 하고, 그래야 구족계 보살계를 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생각이고 이렇게 행자들을 자상히 챙기신다.

엄격하면서도 개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승풍. 송광사가 보조스님의 목우가풍을 면면히 이으며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어 온 승보종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큰스님을 위시해 대중스님들이 '올바른 수행자상' 확립과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길상사 선방에서 수행하는 덕조스님은 "방장 큰스님은 항상 생활속의 계율을 후학들에게 일깨워주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며 "방장스님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수행자다운' 스님들을 매우 아끼신다. 송광사뿐 아니라 파계사 해인사 확인들이나 율사들을 대만의 율원에 보내 수계의식을 참관케 하고, 계율관련 외국서적을 구해와 전국의 율사스님들에게 보내주시는 등 한국 율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말한다.

또 "직접 채소밭에 나가 막일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며 "밭에 물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면 소임자를 직접 불러 몽둥이를 드시는 엄한 분"이라고 보성스님의 평소 생활을 귀띔해 주셨다.

옛날 배고픈 시절 방장스님은 행자들에게 배고프면 언제나 먹을 것을 먹으라며 파격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며 자상함이 많으신 큰스님이시다고 회고하며, "다만 '음식을 돌아다니거나 서서는 먹지말라' 고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계율에 바탕한 가르침임을 알았다"고 덕조스님은 덧붙였다.

며칠 후 서울에 오신 보성스님을 뵈었다. 방장스님은 4일 열린 광덕스님 열반 2주기 추모법회에 법문하기 위해 먼길을 오신 것이었다. 광덕스님과 스님은 도반으로 함께 수행하고 정진했던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기에 추모 2주기 법회에서 직접 법상에 오르셨다.

광덕스님이 언제 사바세계에 왔다가 언제 갔는고.

해천명월초생처(海天明月初生處)요,



◇스님은 율원 발전과 송광사 목우가풍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 몸 받은 인연 소중하게 여기고 성불각오로 공부"

암수제원정효힐시(岩岫啼猿正歇時)로다.

(바다 하늘에 밝은 달이 처음 뜨는 곳이요,

바위산의 원숭이가 울음을 그칠 때라)

풍송단원귀령거(風送斷雲歸嶺去)하고,

월화류수과교래(月和流水過橋來)로다.

(바람이 보낸 조각구름은 산마루를 돌아가고,

달빛싣고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오네)

이렇게 읊으신 스님은 대중들에게 "광덕선사가 열반했다고 하면 단견(斷見)에 떨어질 것이요, 열반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견(常見)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중이 알아 듣고 못알아듣고는 상관없이 광덕선사는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수미산에 올라, 구멍없는 피리로 시간밖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선사는 깨끗함이 눈처럼 희고, 법의 눈이 둥글고 밝았으며, 종단을 위해 진력하시고, 자비로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으니 그 공덕을 논하려면 바다같이 큰 입으로도 말하기 힘들것입니다" 라며 광덕스님의 뜻을 기렸다.

이어 스님은 불광사 법당을 가득채운 불자들에게 나직하지만 간곡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셨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인연 만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몸은 부모로 인해 얻었지만 불법은 어떻게 만났는지를 상기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맹구우목처럼 불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한가지라도 실천하도록 하세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과 지구촌아래서 작게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나래를 펼쳐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안과 밖이 맞아야 합니다. 네 주장자 내 주장자 따지지 말고 부처님 제자로 크게 생각하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이 앞서야 하는 수행"이라는 것이 보성스님의 평소 신념이다. 사람 몸 받고 나온 금생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불의 각오로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흥륜스님

운문사 하면 먼저 대강백이신 학장 명성 스님을 떠 올리고 그리고 나면 학장스님 곁에서 수레의 두 바퀴 역할을 해 내는 두 분 스님이 저절로 떠오른다. 한 분은 지난호에 얘기한 일진스님이고 또 한 분이 흥륜 스님이다.

흥륜 스님은 내 외전을 두루 갖춘 분이기는 하지만 운문사 외에는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다. 한번은 은사스님의 권유로 성라암 주지직을 잠시 맡았지만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나는 운문사가 좋다' 하시고는 운문사로 홀연히 내려 가셨다.

'흥륜 스님'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운문을 나온 대부분의 스님들은 평가를 한다.

강원이 어떤 곳인가, 수행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교육기관이 아닌가. 각자의 사찰에서 그 사찰에서 익혀온 온갖 습의들을 다시 뭉쳐서 곧은 수행자로 길러내는 곳이 아닌가. 흥륜 스님은 학인들에게 경(經)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한시도 한곳에 머물러 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 도량 곳곳에서 수행자로서 약간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발견되면 그때 그때 고쳐주고 나무라시는 분이다. 때론 너무하다 싶고, 이 정도면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일같은데도 흥륜 스님한테는 용납이 안된다. 좀 개방된 스님들은 더러 불만을 말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어나는 불만일뿐, 아무도 흥륜 스님의 그런 모습에 반감을 가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스님은 사심이 없고 오로지 대중을 위해서 그러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평소에 보고 느끼기 때문이다. 만약 흥륜 스님의 행동이 학인들의 귀감이 되지 않았다면, 흥륜 스님의 충고에 다들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스님은 학인들의 뒤치닥거리를 손수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주는데 누가 반감을 가지겠는가. 또 소임 잘 살고 공부 잘 하는 학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강의로 미소로 꾸지람으로 학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

나는 스님께 직접 공부는 배우지 못했지만 후배들 말에 의하면 스님은 경(經)뿐 아니라 사서삼경까지 두루 섭렵하신 분이라 그분의 강의시간은 훨씬 감칠맛 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스님은 보기와는 달리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 시사 월간지를 구독하시고 신문의 정치면도 빼놓지 않고 읽으신다.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만 가지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쩜 가장 현대적이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앞으로 내세워 자랑하시지 않으신 분이기에 아마 그리 느낄 것이다.

스님은 특히 나이먹은 학인들을 더 좋아하신다. 나이 먹어 어렵게 공부하는 모습이 더 대견스럽고 또 어린 학인들을 잘 다독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또 스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반 음식점에 들어 가지 않는다. 한번은 서울역근처 찻집에서 잠시 뵈었는데 차을 마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라고 하시고는 쪼랭이속에서 도시락이 아닌 빵과 김치를 꺼내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드시는 스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외계인 바라 보듯 했지만 스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요기를 하시고는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다.

스님이 길을 나설 때 시자는 으레 김치병을 챙겨드린다. 혹 요기라도 하실 때 드시라고 말이다. 요즘 대부분 스님들은 음식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길가다가 배 고프면 적당한 음식점에 들어가 스님으로서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음식을 챙겨 먹기 마련이다. 누가 흥륜 스님 처럼 김치병 넣고 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겠는가. 이렇게 스님은 가식 없이 몸에 배인 수행을 학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흥륜스님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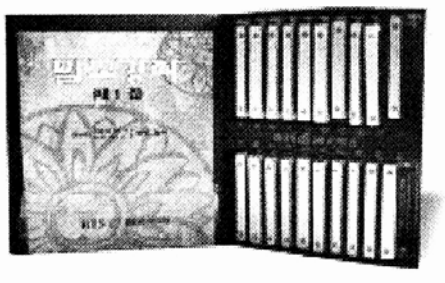
되는, 보배 중의 보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스님이 은사스님의 간곡한 권유로 서울에서 잠시 주지소임을 사셨을때 그때 나는 공부를 한답시고 뒷방에서 신세를 좀 진 적이 있다. 서울 살림이 어떠한가, 매서운 곳 아닌가. 돈 없는 시골 학인이 서울 올라와 공부하고 싶어도 거주할 곳이 없어 믓하는 경우가 많은데 흥륜 스님은 있는 방 모두를 공부하겠다는 학인들에게 내 주고 교통비까지 주셨다. 다른 서울 절에서 찾아 보기 힘든 '진풍경' 이었다. 당시 공부한답시고 모두들 아침 밥 먹으면 학원으로, 학교로 다 나가면 절에는 스님 혼자 남아 이것 저것 꾸려 나가야 했는데도 스님은 후학들 양성에 운문사에서나 서울에서나 변함 없이 덕을 베푸는 분이시다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때론 호된 꾸지람으로 귀가 번쩍 뜨이게끔 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는 운문 도량, 그 도량에 주석하시며 비구니계, 나아가 불교계에 큰 자리매김을 하시고 있는 흥륜스님. 스님의 해박한 강의를 오래오래 들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 세원사 주지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 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제 5 기생

원봉불교 어산의식 교육원

본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교육과정	교 육 내 용
기본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3개월 ▷ 준 비 물 : 목탁, 요령(별도구입) ▷ 교육내용 : ① 기본예의 ② 천수경 ③ 행선축원 ④ 예불 ⑤ 목탁 치는 법 ⑥ 요령
중급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기본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기 간 : 1년 ▷ 교육내용 : ① 상주권공 ② 대령관욕 ③ 권공 ④ 지장청 ⑤ 시식(관음시식, 전시식, 구병시식) 천수북, 법성계북, 장엄염불, 진언쇄줄 등
연구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중급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기 간 : 1년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교육내용 : ① 의식을 실습하고, 각종행사에 동참 할 수있음 ② 예수 제의식 ③ 천수바라 사다라니 바라 나비춤등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일 시 : 2001년 2월 20일(음력 1월 28일 화요일)오전 9시 30분
※ 장 소 :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222번지 작약산 광제암 ☎ 055)391-1274 핸드폰 011-833-4404
※ 기 타 : ① 중급 및 연구과정 이수자에게 본 교육원 수료증 수여 함.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원 사무실로 문의 바람. ③ 교육기간 : 기본 및 중급과정 오전 9시~12시 30분

작약산 광제암 주지 원 봉

개원 10주년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량에서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기념 법회를 봉행하오니 이 거룩한 인연 공덕의 자리에 꼭 동참하시어 불 보살님의 크나큰 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불기 2545년 3월 1일(목) 오후 2시
【장 소】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청 옆)
【내 용】
· 제1부 - 기념법회
· 제2부 - 보살계 수계식
· 제3부 - 축하공연
(※ 명창 오갑순 외 다수 출연)
· 제4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문의전화】 사무국 02)389-8966 02)387-8529

광 운 정 사
부설 광운불교대학
주지 청운 합장

기자모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며 전국 6만5천 후원자를 대상으로 월 1회 홍보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시설 - 소쩍새마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장애아동생활시설, 녹야원 순회재활/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그룹홈 4개소, 어린이집 3개시설

▣ 자격조건
1.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잡지, 사보관련 기자 경력자 우대
3. 불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우대

▣ 모집기간 및 인원
1. 모집기간 : 2001년 2월 17일 (토)까지
2. 모집인원 : 0명

▣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위주)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형방법
1. 1차전형 : 서류심사 2. 2차전형 : 면접

▣ 접수처 및 기타
1.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국 총무부(우: 136-075)
2. 문의 - Tel. 02) 928-0750 Fax. 02) 928-0752
3. 법인소개 - http://www.sgwon.or.kr
4. 기타 - 제출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승 가 원
(The organs for social welfare - SEUNGAWON)